



“금강산 불교가 되살아나고 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오른쪽쪽 첫번째), 총무원장 법장 스님(왼쪽쪽 첫번째)등 4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1월20일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 복원 낙성법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대웅전 현판제막식 모습.

# 금강산 법등 다시 피어올랐네

## 北 신계사 대웅보전 복원 낙성식 현장



11월 20일 신계사 대웅전 복원 낙성법회가 끝난 후 남한 불자들이 참배하고 있다.

**11월** 20일 오전, 북한 평안 강원도 고성군 창대리 금강산 신계사에는 가는 비가 내렸다. 해방 전까지 21개 동의 전각과 8개 산내암자를 거느리는 대가람으로 금강산 불교를 대표했던 신계사. 한국전쟁의 참화 속

### 남북한불자 400여명 참석 평화통일 기도도량으로

에서 폐사지로 전락한 천년 고찰 신계사 대웅전이 역사 앞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축하하는 듯 했다. 신계사 대웅전 복원 낙성식. 남북 불교교류 10년 복원 논의 5년 만에, 남북한 불자가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민족통일의 초석을 쌓기 위해 전통문화재를 복원해 냈다. 이로써 53년 동안 꺼졌던 금강산 불교의 법등은 다시 타오르게 됐다. 대웅전 복원으로 신계사는 이제 금강산 불교의 성지로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을 기원하는 기도도량이 된 것이다. 금강산을 찾는 불자들도 이제 대웅보전에서 예불을 올리며 신심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이날 낙성법회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이 신계사 대웅전에 모셔지는 부처님의 눈을 그려 넣는 점안식을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헌화, 봉행사, 종장법어, 축사와 축원, 통일기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신계사의 대웅전 낙성식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조계종에서는 원로회의 의원 활안, 천은 스님, 총무원장 법장, 교육원장 정화, 포교원장 도영 스님, 9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 총화의원 스님 23명을 비롯 137명의 교계 원로, 중진 스님이 이곳을 찾았다. 마치 조계종 종단 전체를 이곳으로 옮겨 놓은 듯 했다.

정·재·학계의 대표들도 자리를 가득 메웠다. 시인 고은, 한학자 김용옥, 이봉조 통일부 차관, 유홍준 문화재청장, 국회의원 김원웅, 배지선 의원 등 400여 명이 역사의 현장에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대결과 갈등’을 ‘화해와 단결’로, ‘분단과 단절’을 ‘교류와 소통’으로 바꿔나가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신계사 복원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화합과 통일의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했다. 법장 스님은 이날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신계사를 평화통일의 도량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 금강산 일대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희생된 영령을 기리는 ‘평화기원 위령제’를 봉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신계사 복원이야말로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오른쪽 첫번째)이 신계사 대웅전 부처님을 점안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문화재 복원의 중요한 선례이며 문화재청도 신계사의 복원을 최대한 도와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고은 시인은 “신계사 법기암에서 수행했던 스승 효봉 스님의 모습을 대하는 듯 감개무량하다”고 했으며, 도을 김용옥씨는 “진정한 통일은 신계사 낙성식이 시작된다”면서 “이를 통해 불교는 가장 전통적인 종교이자 21세기의 가장 전위적인 종교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계종은 신계사 복원불사를 여법하게 진행시키고 관광객을 상대로 홍보 및 모연 사업 등 실행생활을 시도하기 위해 제정 스님을 본사로 파견했다. 스님의 신계사 상주는 남측 종교인으로서 처음으로 북한에 머무르며 종교 활동을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기도 하다. 북한도 관리원 7~10명을 파견해 절 운영을 도울 방침이다.

신계사 복원을 위한 뜨거운 감동은 이날 저녁 금강산 호텔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로도 이어졌다.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 종장 스님 5천만 원, 도선사 혜자 스님 7천만 원,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마근, 영조, 도공 스님 등도 각각 성금을 약정, 무려 4억원과 기금이 즉석에서 모금됐다. 금강산 신계사=강유신 기자

## 신계사 복원불사 일지

- 해방전**  
1910년대 훼손되던 신계사 옛 모습.
- 2000년**  
평불협 법타 스님을 중심으로 조불련과 신계사 복원 협의 시작
- 2001년**  
신계사 등달기
- 2001년 11월**  
신계사지 지표조사 실시
- 2003년 11월**  
신계사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
- 2004년 4월**  
신계사 복원 착공식
- 2004년 11월**  
대웅보전 낙성식 개최

## 2007년, 대가람 위용 갖추다

신계사는 신라 법흥왕 6년(519년) 보은 화상 이창건, 유점사 표훈사 장안사와 함께 금강산 4대 명찰로 꼽힌다. 해방 전만 해도 석두·효봉 스님 등 선승이 주석하며 법등을 전해왔는데 한국전쟁 통에 모두가 전소돼, 3층 석탑과 주춧돌만 남아있다. 북한 당국은 이곳을 국보유적 제 95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신계사 대웅전 복원은 지난 2000년 평불협 법타 스님이 북한을 방문한 길에 조불련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논의됐으며 2002년 4월 신계사 지표조사 보고서 발간, 2002년 12월 조계종과 조불련 간의 합의각서 교환, 2003년 11월 신계사 남북공동 발굴조사, 2004년 4월 금강산 신계사 복원 착공식 등을 거쳐 마침내 2004년 6월 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종장)가 결성됐으며 2004년 11월 20일 완공을 보게 됐다.

2007년까지 4단계에 걸쳐 3층석탑 극락전 금강동문 단세루 최승전 대향각 종각 나한전 승수전 등 12개 전각이 목조 전통건축양식으로 건립돼 찬란한 금강산 불교의 대표주자로서의 사격을 되찾을 전망이다. 대웅전은 19세기 말 중창된 모습 그대로인 외 9포 내 13포, 전면 3칸 측면 3칸 28평 규모로 지어졌다. 신계사 복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85억 원 수준이다.

신계사지는 풍수학적으로 행자가 들어와 고승이 된다는 ‘사변위룡(巳變爲龍)’의 지세로 여겨진다. 사방으로 관음봉 문필봉 집선봉 세존봉 등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가 외호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740,000원 / 12월 14일 출발

일시	교통	일정
12월 14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신사 순례 및 대련 관광/국내선편으로 정주로 이동
12월 15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철담, 포공사 관광
12월 16일	전용버스	소림사, 탐림, 백마사 순례
12월 17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12월 18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팀, 개인 경비 외에 포함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워킹사, 탐거사, 용악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한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팀 불포함

##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 85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 85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 80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 80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 179만원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